

경공업의 눈부신 발전면모를 보여준 뜻깊은 전시회

◎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을 돌아보고 ◎

공화국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합쳐져 벌어지고있는 속에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시품마다에 어려웠던 인민사랑의 세계

얼마전 우리는 수많은 참관자들로부터 찬탄을 이루며 흥성이고있는 3대혁명전시관 경공업관을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경공업의 한 일군은 《경공업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고귀한 결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위대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경공업의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굳건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경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류,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회장에 들어서니 중앙홀에 학생들에게 안겨줄 배낭식가방을 기쁨속에 보여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사진판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우리 학생소년들의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제품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풀어주겠다고 하시며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도록 하시고 학생용가방도안들도 몸소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공업을 하루빨리 발전시켜 보다 훌륭한 우리의것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은 학생들이 좋아라 메고다니는 책가방에도 어려웠으니 우리들수록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어찌 책가방뿐이랴. 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보아도 《금침》과 《선홍》, 《릉라》상표를 단 갖가지 식료품들이며 《민들레》학습장, 《애보산》구두, 《봄향기》화장품을 비롯한 훌륭한 명제품들을 볼수 있다.



자랑찬 이 현실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나라의 경공업발전을 위해 기울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가 어려와 눈곱이 젖어들었다.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경공업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시고 인민들에게 제일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러 나르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평양강변이공공장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곡산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식료품생산기지를 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공장들을 찾으시고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더 좋은

명제품들을 만들어내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룡악산비누공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인민들이 쓰고 남을만큼 물비누를 팡팡 생산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평양양말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어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을수 있게 질 좋고 맵시있게, 다양하게 생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시회에 출품된 그 어느 제품이나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인민의 어머니의 로고와 심혈이 어려지지 않은것이 없었다.

경공업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판들을 우리로써 사람들은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오늘의 전시회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지난 10여년간 대담한 도약과 뚜렷한 전진을 이룩한 공화국의 경공업 발전사의 자랑찬 축도라고.

호평받는 특색있고 다양한 경공업제품들

이러 우리는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이 딱 들어찬 드넓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동행한 일군은 이번 전시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공장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550여개 단위에서 개발, 생산한 670여종에 1만 2 000여가지의 제품들이 전시되었다고, 많은 경공업단위들에서 인민생활에 쓸모있고 가치있는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전시회에 내놓는데 대하여 경이높이 말하였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출품된 제품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질적수준이 훨씬 높은것을 느낄수 있었다.

전시된 방직제품과 편직, 피복, 가정용전기제품들, 신발, 가방, 학용품들과 사무용품으로부터 식료품, 부엌용품, 일용잡화, 문화용품, 가구 및 건재품,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전시대를 보아도 모두 우리의것이랴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로 갖추어져있었다.

국내에서 생산한 테트론인견실과 테트론인견견으로 맵시있게 만든 교종별학생교복과 학생가방, 오리털솜옷들은 볼수록 멋이 있어 보였다. 국기, 국화, 조조를 형상한 피복제품들도 있었다.

은하무역국, 애국모란피복공장에서 출품한 남, 녀양복, 달린옷 등 각종 피복제품과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출품한 공예품들, 이불, 담요, 내의류를 비롯하여 맵시있고 특색있는 제품들을 보고 또 보며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올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세수비누와 다기능 샴푸, 머리칼영양액 등의 제품들도 참관자들속에서 수요가 높았다. 특히 기능성소독세수비누는 살균력이 높은 반면에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아 인기를 모았다.

나라의 향료공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향료들도 출품되었는데 오미자향, 생강향, 박하향, 인삼향, 솔잎향을 비롯한 향료제품들에서 풍기는 이채로운 향기가 전시대에 차고넘쳐 기분을

상쾌하게 했다. 날이 변모되는 경공업의 발전 모습을 가슴뿌듯이 안아보며 우리는 맛좋은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이 들어차있는 식료품전시대들에도 둘러섰다.

어느 전시대나 참관자들로 흥성이었지만 그중에서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출품한 예기껏가방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았다. 공장에서는 소화흡수율이 높고 어린이들의 영양학적가치를 따져가며 만든 새로운 유형의 젓가방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오일전장음료종합공장전시대에서는 독특하고 새로운 기능성음료들을 손에 들고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이 음료가 뇌혈전방지와 당뇨병치료에 좋다누만. 우리의 식료품들이 다른 나라의것보다 훨씬 좋거든. 하하...》

《그 음료를 마시면 병이 꼭 멀어지겠어...》

전시회장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 제품들이 있었다.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만든 제품들이었다. 지방공업대학의 본보기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만사람의 인기를 끌고있었다.

전시된 제품들도 볼수록 호모했지만 그보다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하였다. 전시회장을 딱 채운 각종 인민소비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연방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의 제품들이 이렇게도 멋있고 질이 좋은가!》

《우리의 경공업이 이렇게도 힘이 있는가!》

전시회장을 찾은 참관자들은 《당의 은정속에 나라가 비약하는 우리 경공업의 경이적인 발전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체감할수 있었다.》고 저마다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나라의 경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된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보다 윤택하고 풍요해질 인민들의 행복한 매일이 안겨왔다.

본사기자 홍흥식



얼마전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소개편집물 《사랑과 정의 이야기》를 시청하면서 나는 눈곱이 젖어있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지난해 최대비상방역기간 인민군대 군인들의 방호조에 태어난 장풍옹에 대한 감동있는 이야기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있다. 그애가 태어나서 돌을 맞은 지난 1년간 통풍을 위해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의 이야기들을 전한 소개편집물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오직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아름다운 덕과 정으로 엮어진 화면들에서 나의 눈길을 강하게 끈것은 태어난 통풍이가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아기를 포근히 감싸안은 강보가 아닌 군복!

무릇 사람들은 군복을 떠올릴때면 군대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이나 훈련장의 군인들을 그려보곤 한다.

하지만 세상에 처음으로 고고성을 터뜨린 통풍이를 따스히 품어안았던 그 군복은 무엇이었던가. 어이하여 사진속의 군복이 비상한 의미로 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것인가.

물문제로 고생한다는것을 알고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전투를 벌인 어느한 부대군인들의 아름다운 소행 등 인민군대인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미덕, 미풍은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것인가. 그 군복이었다. 그 군복을 입은 인민군대인들은 열렬한 정성과

우리 군대가 지켜선 전초는 결코 원수와 총구를 겨눈 최전방에 만 있지 않았다.

조국이 부르고 인민이 기다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인민군대가 있었고 그들의 강한 투쟁과 헌신분투가 있어 인민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는 날이 높아가거나

투고 하진속의 군복

회생적인 헌신으로 귀중한 인민의 생명을 역세게 지켜냈다. 어디 그뿐인가. 나라의 복원 라선시와 집덕지구, 김화군을 찾아가 보아도 인민의 무용도원을 환희롭게 떠올린 군인들의 더운 피와 땀의 무게를 느낄수 있고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황금전야를 바라보아도 물에 잠긴 벼포기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아일으켜 풍년의 가을을 안아온 군인들의 고결한 애국의 세계, 애민의 세계가 후회없이 안겨온다.

이제는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군대인의 본태이고 성격이며 위력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과 주요전구마다에서 돌격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말씀이, 정령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지상의 명령으로 받들어나가는 미덥고 끝없는 인민군대가 있어 이 땅우에는 인민의 락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군민대단결, 일심단결의 성세가 더욱 철용성같이 다져지고있는것 아니겠는가.

갓나이를 뜨겁게 감싸안은 군복!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신념으로, 복무의 목표로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대, 참다운 인민의 군대의 불멸의 영상이고 화폭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군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이 땅, 이 하늘아래에는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만풍의 가을처럼 무르익는 부흥강국이 반드시 솟구쳐오를것이라고.

김영범



얼마전 한낮이라 파스한 해변속에 거리의 가로수밑을 지나던 나의 머리우에서 락엽이 하나둘 떨어내렸다.

온 여름 자기의 푸르른 잎새로 거리의 풍치를 돌고 구 사람들과의 더위를 가셔주던 나무잎. 이제는 나무에서 떨어져 생명력을 잃고 색마저 바래 이리저리 발걸에 채이고 바람에 구울려간다.

그것을 보느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뇌리를 쳤다. 물론 자연의 순리로 오는 어쩔수 없는 현상이지만 사람의 운명도 키위준 품을 떠나 삶의 명줄을 놓쳐버리면 저 락엽과 무엇이 다르랴.

지켜줄 품이 없어, 안아 보살펴줄 손길이 없어 태어난 조국을 떠나 류랑걸식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그 얼마이던가.

문득 언제인가 TV에서 보았던 화면이 다시금 생생히 떠올랐다. 수년째 계속되는 분쟁과 내전을 위해 남의 나라로 피난의 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전복되어 바다물에 수장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다. 그들속에는 너녀들과 아이들이 절반이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졌던가. 겨우 낫없는 땅에 발을 붙인 피난민들은 야외에 립시 설치된 수용시설에서 초보적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엄격한 감시속에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며 슬픔과 눈물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만일 나도 그런 땅에서 태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칠 일이다. 얼마나 궁지높은 삶, 복판은 인생인가.

천만민을 품어안고 따뜻한 사랑으로 운명과 미래까지 책임지는 내 조국.

인민들을 자신의 살붙이처럼 여기시고 정과 열을 다해 보살피며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제일 큰 락으로 여기시는분, 인민이 당한 불행앞에서는 한몸 서슴없이 나서시어 어머니도 출수 없는 하늘같은 사랑으로 아픔을 가셔주시고 천만복을 더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공화국의 국위와 국력을 두고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함성은 궁지와 자부심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행복의 별천지로 더욱 훌륭히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과 함께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나의 생활에 와닿는 전설같은 사랑의 실체들은 과연 어떻게 온것이던가. 세계가 자연재해로, 보건위기로

보급자리의 사랑하는 형육을 잃고 비판에 잠겨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더 멋있고 회한할 살림집을 받아안고, 낱아준 부모도 주지 못하는 사랑과 헌신으로 악성병마로부터 운명을 지켜준 그 품이 고마워 울며 슬픔과 눈물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품, 원수님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체감한 인민이기에 어머니의 품에 더 바짝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값높은 인생도 있고 바로고 리상하는 모든것이 이루어질수 있기에 위대한 어머니의 품을 삶의 영원한 보금자리로 마음속에 더 굳건히 새겨안았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역적으로 뿌리내린 이 신편은 그 어떤 천재품이 들어다쳐도, 그 무엇으로써도 절대로 허물지도 지우지도 못한다.

정녕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궁지높은 인민이 또 어디 있랴. 내가 안겨사는 고마운 품,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해준 가을날의 락엽이었다. 리창식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우리 식의 전법을 체득해야 한다

주제38(1949)년 9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한 땅크부대 기술강설에 들리시었을 때였다. 땅크기술강설에는 가운데 땅크발동기와 부속품들이 전시되어있고 벽에는 땅크발동기의 원리와 부속품들의 구조작용을 보여주는 직관물들이 게시되어있었다.

땅크발동기앞에 다가가신 수령님께서 한 부대일꾼으로부터 발동기의 마력수와 땅크병들에 대한 기술교육과 땅크운전 및 사격훈련진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일꾼은 부대에서 땅크에 대한 일반기술교육은 기술강설에서 하고 땅크운전훈련과 사격훈련은 열산과 거기로부터 1km 떨어진 사격장에서 고정되어있고있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었다.

그의 대답을 통하여 주변산들중에 물매가 급하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고 지에 각이한 정황을 조성해놓고 운전기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훈련을 주고있다는것을 아신 수령님께서 잠시생각에 잠기시었다.

이후하여 그이께서는 군인들에 대

한 군사기술교육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땅크운전훈련과 사격훈련은 고정된 훈련장에서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투행동은 미리 준비된 곳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지형조건이 각이한 지대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을 고정된 훈련장에서만 훈련시키면 자기의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는 산과 강하천이 많으며 도로가 제한되어있고 도로주변에는 대체로 논밭이 있는것만큼 땅크운전훈련을 협한 산악지대에서도 하고 강하천에서도 하며 습지대에서도 하여야 한다고 그 방법과 형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땅크사격훈련도 여러가지 불리한 정황속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목표를 단방에 소멸할수 있는 높은 사격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

으며 부대지휘관들은 땅크훈련방식에 대한 과오에 대하여 심각하게 돌이켜보았다.

사실 부대에서는 훈련강령을 작성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어느한 나라의 땅크전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었다.

그러다나니 훈련강령에는 평야에서의 훈련이 기본을 이루고 극상해야 낮은 야산이나 개울 같은 장애물구복이 전무했던것이다.

이런 전법으로 훈련된 땅크들이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산과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서 과연 자기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겠는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다 서늘해진 부대지휘관들은 죄송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면서 투철한 주제적안목과 비범한 통찰력으로 다른 나라의 훈련방법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던 부족점을 대변에 찾아내고 조선식의 땅크전법을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전명진

총련 소식

화목한 동포사회,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제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가 애국애족의 넋을 굳건히 이어가며 화목하고 유족한 동포사회를 꾸리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다.

학부형세대를 망라하고있는 청상회조직의 특성에 맞게 우리 학교 학생수를 늘이는것을 민족교육사업의 사활적문제로 들어시키고있는 한편 《조선학교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우리 학교를!》이라는 구호밑에 일본 각지의 조선학생들에게 민족의 넋을 새겨주기 위한 중정교육양도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청상회상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청년상공인들을 비롯한 새세대들을 조직에 망라시키고 지역청상회를 확대하고 모든 지방에 산하조직



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동포 귀족한 가르치심을 받아안 피찾기운동과 결부하여 본격는 더없는 영광을 지니게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지난 9월 일본의 미에현에서는 청상회의 주최로 《우리 민족연단 2023》이 진행되었는데 동포사회의 화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새 세대에 상응한 청년단체로서의 청상회의 개성적인 모습이 뚜렷이 과시되었다.

여러 행사와 모임을 계기로 동포사회의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족교육을 위해 자신들의 맘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청상회성원들의 지성은 제일동포들을 뜨겁게 감동시키고있다.

돌이켜보면 청상회가 결성된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이었다.

당시 총련에서는 새세대 동포상공인들을 묶어세우기 위해 청상회를 결성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조직을 확대하고 애국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갈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메인 주제 85(1990)년 11월 조국을 방문한 총련청상회 일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귀족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더없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본조선청년상공회는 젊은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새세대 동포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적인 청년조직이며 제일조선인운동의 대를 믿음직하게 이어가자는 힘있는 애국력량이라고 하시면서 총련청년상공회가 총련사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일을 잘함으로써 제일조선인운동의 대를 훌륭히 이어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청상회 일꾼들은 조직을 확대하고 새세대 동포군중을 애국애족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특히 민족교육사업을 자기 활동의 첫째가는 항목으로 내세우고 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짧은 기간에 중앙과 본부, 지역들에 자기 조직을 가진 힘있는 단체로 강화발전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적인 서한에서 제일본조선청년동맹과 제일본조선청년상공회, 제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는 전세대들이 이룩해놓은 귀족한 유산들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하며 동포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선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잊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도는 동포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민족교육을 비롯한 애국애족운동을 선두에서 주도해나가며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자.

이것은 청상회 일꾼들과 성원들의 한결같은 결심이고 의지이다.

제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 후비대인인 청상회.

이런 애국의 대오들이 있어 지역의 엄숙한 환경속에서도 총련애국위업의 대는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아서

공화국의 품에서 인기있는 화술배우로 (2)

1960년대말, 1970년대 초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있었으며 예술인들앞에는 특색있는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었다.

그런데 연극배우로서 천성적으로 소리가 약한것으로 하여 이렇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있던 오향문의 변민은 남달리 컸다.

소년시절부터 품어온 꿈을 버려야 하는가?

바로 그러한 메인 1971년 11월 어느날 오향문은 자기 영화화술배우로 소환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다.

그의 화술에서 남들도 미치지 못할것을 보았던 남다른 재능의 싹을 발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영

화화술배우로 불러주시었던 것이다.

오향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속에 창조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오향문을 비롯한 창조집단에 있어서 너무나도 생소한 분야였고 실천적인 경험과 리론상으로도 준비되어있지 못하다보니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고충을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61(1972)년 1월 어느날 그들의 창조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앞으로 창조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으며 그

는 차츰 영화화술배우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하나하나 갖추어나갔다.

그 나날에 그는 매 대사를 해당하는 영화화면들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기 위해 하나의 영화도 수십번이나 보면서 배우의 감정과 행동, 억양, 표정 등을 완벽히 자기의것으로 만들어나갔다.

남다른 창조성과의 기쁨을 느낄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술적천품과 자질에 완전히 매혹되게 되었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과 날을 이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보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가까이 불러주시며 백역록음을 아주 잘하였다는 치하도 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오향문동무가 대사록음을 한 영화라

고 하면 안심하고 보게 된다는 분에 넘치는 평가도 주시었다.

주제72(1983)년 1월 어느날 오향문과 함께 그의 딸 오미란을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날의 불미스러운 경력때문에 고민하고있었는데 자신께서 동무를 믿는다고 하시며 애국자, 혁명동지로 내세워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의 딸도 오향문은 동무라고, 그의 예술적기량을 책임지고 높여주어 인민배우로 키워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오향문은 자기들의 정치적생명을 다 맡아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예술창조의 길에서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쳤다.

본사기자



오향문선생과 그의 딸 오미란

연계된 애국적 투쟁의 불꽃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우리 민족의 반일민족해방 투쟁사에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청년들의 대중적인 반일시위 광주학생사건도 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라주사이의 기차안에서 일본인중학생이 한 조선녀학생을 희롱하고 모욕적인사를 던진것을 계기로 일어난 광주청년학생운동은 삼시에 평양과 신의주, 함흥, 개성, 대구, 부산 등 전국도처에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타번지고 급속히 확대되었다.

청년학생들은 각지에서 《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노예교육을 철폐하라!》, 《조선 독립 만세!》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배라를 부르고 가두던

설을 하는 등 대중적인 반일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참을수 없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용약 펼쳐나선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은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대량검거에도 불구하고 근 6개월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29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어진 이 투쟁에는 전국각지 194개 학교의 6만여명의 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민들이 참가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은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비록 승리하지 못하였으나 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한 민족의 존엄과 자

주권을 되찾고야말려는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기개와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광주학생운동이 있을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삶을 누리려는 광주학생들의 념원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8.15후 일제를 대신하여 괴뢰지역에 거머든 미제는 포악무도한 군정통치로 진보적인 정당들과 애국적민주력량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리승만 《정권》을 조작하여 식민지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침략적인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러 우리 민족을 무참히 학살하고 조선민족의 귀중한 재부를 파괴탈탈하였다.

오늘도 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간판밑에 여전히 주인행세를 하면서 괴뢰들을 저들의 패권적리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고있다.

한편 미국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괴뢰지역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로골적인 력사적폭과 군비증강, 체질책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오늘 괴뢰지역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정은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외세의 《동맹우선》을 떠들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는 가 해된 우리 민족의 천년속적인 일본반동들과 손을 잡는 친일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지리물이 1%로 떨어진다》고 해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 나서겠다.》고 떠벌이며 일제강점기정권피해자들에게 십나라것들을 대신하여 저들이 보살핌을 주겠다고 설쳐대면서도, 일본을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괴여올리며 일제의 괴뢰반 괴뢰적악을 덮어버리고 반인륜적인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친한역적질을 해낸것도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역도의 친일굴종행위로 하여 일본인들이 《육일기》를 빼앗아 날리며 괴뢰지역에 기여들고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도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등 로골적인 재침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침략적인 외세의 강점과 지배가 계속되고 그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친미친일분자들이 있는 한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각층의 지향과 념원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90여년전 일제를 반대하여 떨쳐나섰던 청년학생들의 민족자주의 합성은 오늘 친미친일에 환장한 윤석열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하고 자주와 민주, 평화를 위한 투쟁의 메아리로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정광혁

살인과 범죄를 패락으로 삼는 살인마들

매일 매 시각 저질러지는 미군의 수많은 살인범죄만행으로 말미암아 괴뢰지역 주민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미군범죄의 피해자, 그 희생물의 운명을 피할수 없었다.

여기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괴뢰지역 여성들이었다.

살인과 범죄를 패락으로 여기는 미강점군은 여성들의 인권을 규제한 국제법 같은것은 안중에 없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인, 강간, 강도, 폭행을 때없이 저지르곤 하였다.

1992년 10월 28일에 있는 윤금이살해사건도 미제침략군의 범죄적정체를 날같이 드러내 보여준것이다.

미2사단 제20보병연대 5대대 케네스 마이클이라는자는 경기도 동두천 미군기지촌에서 윤금이녀성을 통유한 뒤 그를 병으로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하고는 괴홀리며 죽여가는데 집승도 낮을 불행히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살인범죄를 저지르려고도 이놈은 부대에 들어가 자기의 범죄가 그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듯이 같은 패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정면지 못하겠으면 그곳에 가보자고 까지 하였다.

윤금이살해사건이 전해지자 사회의 각계층은 《이제는 미군폭력에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들고일었다.

시민단체들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미군철폐》, 《공개사과》, 《살인미군 즉각 구속》을 요구하여 시민규탄대회 등을 연이어 조직하였다.

당시 괴뢰인들까지도 《미군의 조직적인, 집단적인 학대로 우리 민족이 흘린 피눈물의 90%는 너성의것이다. 시급하고도 적절한 대책이 없는한 미군에 의한 너성해, 민족적전대와 멸시는 계속될것이다.》고 하면서 미강점군을 가리켜 《강간군단》, 《살인군단》이라고 규탄하였다.

바빠난것은 미국과 괴뢰당국이였으며 이로 하여 미군단첩에는 언제 가도 괴뢰지역이 치욕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그러나 이때에 와서도 살인귀패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정면지 못하겠으면 그곳에 가보자고 까지 하였다.

1990년대에 미제침략군이 괴뢰지역에 의하더라도 미강점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건수는 1992년 642건, 1993년 624건, 1994년 1234건, 1995년(8월까지) 499건에 달하였다.

미군범죄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2002년 6월 전쟁연습에 돌아치던 미군장갑차가 길가런 두녀학생을 무참히 깔아죽인 사건은 수십년세월 감행되어온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이고 치명적인 살인행위의 련속이였다.

사실들은 미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야수들이며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전에는 언제 가도 괴뢰지역이 치욕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화약고우에서의 위험한 불장난

피뢰초전세력(《2023 호국훈관》을 빌리고있는 가운데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경계하는 방어》)를 강행하였다.

이것은 화약고우에서 불장난질을 해대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며 임의의 순간에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위험천만한 방동이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피뢰초전세력은 240여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동원하여 1600여대의 출격훈련과 《적》지역 종심타격, 제공권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경계하는 폭풍》)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았다.

올해에는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대대적으로 광고해대며 음흉하게도 연합공중훈련의 간판을 《방어》로 바꾸어달았지만 그 호전적, 침략적성격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이번 훈련의 목적과 내용을 보아도 그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다.

130여대의 피뢰초와 미국 본토, 주일미군기지의 전투목적기들의 《유사시 실천투입능력검정》 등 공화국을 겨냥한 전시련합항공작전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에도 피뢰초전세력은 미국과 함께 공화국지역을 가상하여 설정한 700여개의 《합동요격지점》에 대한 실탄사격훈련까지 강행하였다.

피뢰초전세력들이 이번 실탄사격훈련을 통하여 북의 전략시설들을 최단시간내에 타격하는 방법을 숙련하였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피뢰초전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실전에 옮기려 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10월에만도 피뢰초들은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함락단과 핵전략폭격기들, 그리고 일본해상 《자위대》의 함선들을 끌어들이어 연합해상훈련, 《한》미일 3자연합공중훈련을 비롯한 각종 복합전쟁소동을 연해연방 벌였다. 이번에도 미국과 강행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는 이러한 전쟁소동의 연장으로서 복합전쟁시연회, 복합핵전쟁에비연습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피뢰초전세력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핵전쟁발발의 전운이 짙게 배회하고있다.

현실은 피뢰초전세력들의 반공화국전쟁대결장중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명명백백히 보여주고있다.

피뢰초전세력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핵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현심

《봉화가 올랐다! 윤석열탄핵!》

피뢰 초 지역에서 윤석열 역도를 거어어 퇴진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이 날로 거세지고있는 속에 서울에서 제62차 초물집회와 시위가 광범위 전개되었다.

《봉화가 올랐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제로 열린 초물집회에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종교인, 시민 수만 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다. 반드시 탄핵시키기 위해 모두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리태원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도 취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1년 내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슬픔에 잠겨있는데 윤석열은 박정희의 추도식이나 찾아가 민중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를 위로하였다고 분노를 터트리었다.

《국민의 명령 윤석열 탄핵!》, 《법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핵폐수 앞잡이 윤석열을 몰아내자!》, 《국민기만 위장반성 윤석열을 탄핵하자!》, 《평

화파괴 전쟁선동 윤석열을 몰아내자!》 등의 대형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든 참가자들은 제2의 초물항쟁으로 윤석열탄핵을 이루어내자고 하면서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대행진》 2회가 열렸다.

제주도에서 1회를 마친 행진단은 피뢰초헌법위헌에서 전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남지역총력기진소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진보

연대》 각 지부와 《민주로총》 전남지역본부, 《광주 전남추모연대》 등 13개 단체가 집합하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간 잘못된 외교와 경제정책으로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윤 (정권)은 부자감세와 친재벌정책으로 세수를 감소시켜놓고서는 복지에선 삭감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력사의 흐름에 단 한번도 비켜서지 않

았던 정의로온 전진의 의기와 호남정진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결의했다.

선소식이후 대행진단은 린근지역을 순회하며 윤석열 퇴진선진전을 벌여왔다.

한편 리태원참사 1년을 맞으며 미국, 도이월란트, 오스트라리아 등 세계도처에서 사는 해외동포들도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역도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윤석열역도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망언제조기》라는 별명.

정치에 끌어머리를 들이민 다음부터 입만 터졌다 하면 실언에 망언, 폭언에 악담뿐이거요.

사건에도 없고 참고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아마 건전한 리성으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궤변들만 토해냅니다.

얼마전 중동행각때에도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판에 박은 반공화국대결 너두리를 또 쏟아놓았습니다. 대고로 역도의 입을 두고 《망언제조기》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역도의 입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알아봤더니 리유가 있었거요.

우선 귀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귀라는것

니 《작는》이어서 군대에도 못나갔다는 소리가 정말이었던지 아니면 체질적인 청맹과니인 모양입니다.

코는 더 막연하구만요. 제 족속들의 부패와 폐를 패더, 썩고 병든 사회의 악취는 전혀 느낄줄 모르면서 도 술냄새는 기막히게 잘 맡고, 돈냄새는 기막히게 잘 맡고, 화약냄새는 미친듯이 좋아하구만요.

중 비루스에 전염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복구비》가 《특이증상》을 보인것이고 특히 누가 말할수도, 단속할수도 없는 입에서 열새 없이 망언들이 생산되는것입니다.

이러니 피뢰지역의 각계층은 윤석열역도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치못내기》, 《도덕적저능아》, 《무지몽매한 인간》, 《사람잡는 (대통령)》, 《화약

그들은 왜 《무당총》이 되었는가

피뢰지역에서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총》이 날로 늘어난 건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직후 10%정도였던 《무당총》비율은 29%까지 올라갔다.

전문가들은 정치적경향에서 지지율이 진보 30%, 보수 30%, 《무당총》 40%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문제는 이쪽도 저쪽도 다 싫다는 정치적무관심층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말하는 《무당총》이 증가한다는것이다. 《정치혐오》는 《정치실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누구는 올해 여름 세계청소년여맹대의 파행을 보면 시현 《정부》의 무능에, 누구는 《연가르기》가 우선이

된 정치현실에 실망했다고 이야기한다. 또 누구는 갈수록 막대한 주력단, 생계난을 체험하면서 주권재민의 대기업, 특권층비호와 반서민정치가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토로한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집권세력은 민생에 의면한계 검찰목제의 살롱경을 펼치고 외세굴종의 추태를 부리면서 화약내나는 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의 무능으로 되고있는 《국회》라든가 《막말국회》, 《관장관국회》, 《싸움국회》,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악명을 더욱 떨치고있다.

정치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당사이의 말싸움, 몸싸움이 자자 당내부에서의 당

권쟁탈전, 편가르기식합투는 그대로 민생파괴로 이어지고있다.

민생은 도탄속에서 마지막숨을 몰아치고있지만 정치를 한다는것들은 마지막 정치 《국회》에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우면서 남달네타 싸움질에만 몰두하고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의 정치는 불신을 넘어 좌절과 포기, 혐오의 대상처럼 여겨지고있다. 정치에서 정치는 없고 상대를 인정하기보다는 《케벌시켜야 할적》으로 여겨는 태도, 그로 인해 만무하는 대결과 적대의 언어가 일상화되고있다고 개탄하는 것이다.

《어느 당을 보나 그 사람이 그 사람같다. 어떤 사람이 와도 서로 물어뜯기만 한

다. 이제는 정치에서 진보적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이 판식을 풀었다.》, 《여차피 누가 집권하나 공약을 그대로 신뢰할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벌포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사죄하지 않고 책임 지지 않는게 더 실망이크다.》, 《항상 (바뀌보자.)고 생각해 투표했는데 바꿔봤자 그들이 그들이었다. 방송에 부정부패가 나오는것 보면 (이거 또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뀌봤자 그들이 그놈이다.》 이것이 피뢰지역에서 《무당총》이 날아일어만 가는 리유이며 《민생실종》의 썩은 정치를 심판해야 할 원민중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돈 없으면 불쌍식품을》, 《손로 동은 아프리 카에서나》, 《장애인은 비정 상인》,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민주화운동은 수입한것》, 《공산전제주의》, 《일본은 침략자가 아니라 동맹자》...

이쯤하면 《막말폭포》, 《망언공해》입니다.

사람들이 왜 역도에 대해 《꼭 입마개를 씌워라》, 《깃털어놓고싶은 주둥이》라고 혀를 차며 도리머리를 짓는지 리해가 걸립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 들에서도 샌다고 밖에 나가서도 분수없는 입집을 합니다.

《국회(미의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들은 쪽박떨어 어떻게 하나.》, 《이란은 아랍장주국 량방의 적》, 《100년전에 일어난 일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은 소리를 그냥 담은 그릇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이 입을 하나고 귀는 두개이니 말하는것보다 두배로 들리라고 한것은 옳고그른것, 참과 거짓을 가려 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도의 귀는 진실과 정의의 소리를 뚱뚱 거꾸로만 듣는구만요.

배고프다, 물가를 안정시키라는 서민들의 말은 《천재발라》하라는 소리로, 일자리를 달라, 쌀값을 올리라는 노동자, 농민들의 말은 《내란소동》으로, 미국과의 전쟁연습 반대, 일본의 재집책동을 반대한다는 정토는 《안보불안》으로 들지 않습니다.

눈도 잘못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지자가 아니면 모두 《적》으로 보이고 미국 《제3》 《핵우선》은 《방어용》, 공화국의 자위적역제력은 《위협》으로만 보인다

그리나 《술통령》, 《부패왕조》, 《전쟁미치광이》라는 비난을 받는것입니다.

자, 이러니 야단이 아닙니까.

적게 말하고 많이 들리라고 했는데 민심의 총고와 절규는 듣지 않고 미일상전의 지령과 특권층의 나발만 듣는 귀, 《윤석열차》와 같은 아이들은 만화에 담겨진 민심을 읽을줄 모르는 눈, 쓰물통에 날아오는 수피라처럼 구린내, 지린내만 좋아하는 코, 이렇게 보고 듣고 들이키는것이 온통 역스럽고 못되고 악한것뿐이니 이것을 표현하는 입에서도 온전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한것입니다.

정말 대책없는 《이복구비》입니다.

근원은 뇌매물이었습니다. 정밀검사를 해보니 독재, 대결, 사대, 굴종 등의 각

고안에서 불장난하는 아이...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윤석열역도에 대한 야유, 조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있습니다.

《아마추어대통령》, 《준비되지 못한 독재자》, 《늘말만급 정동되지 않은 사람》, 《외교철부지》, 《미국의 노비》, 《미국의 바둑돌》, 《상진인 미국대통령까지도 충실한 주구인 역도를 《문(미치광이,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적어 호칭하는 정도입니다.

오작품인 《이복구비》에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저랄하고 저랄적이며 무지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윤석열역도를 과연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김정혁

지난 10월말 윤석열역도가 피뢰전자로서는 처음으로 《박정희추도식》이라 는데 참가하였다.

역도는 해외행각을 마치자마자 중동의 친일수적의 무락물, 정유물로 섬기려 하는것이다.

천고대죄, 만고대죄악이 아닐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략자보다 매국노를 더 증오했던것은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고 막대한 피해를 몰아오기 때문이다.

하기에 피뢰지역의 각계층은 일본의 재침의 길안내자로 나선 윤석열역도를 단죄 규탄하면서 독립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며 들고일어나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석열역도가 얼마나 막대한 궁지에 빠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지무능과 오만, 독선과 전횡, 반인민적악과 전쟁책동책동, 전대미문의 사대매국행위로 각계층의 분노를 맞다 못해 보수세력에게서도 배척당하고있는

역도이다.

얼마전에 있는 서울시 강서구청장보충 선거에서 보수파당이 참패한것과 관련하여서도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에게서는 선거매매의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그야말로 윤석열역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있다.

이런 가혹한 처지에 빠진 역도는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박근혜

도의 후광이라도 입어볼가 하여 정치승장파도 입을 맞추는 해피한것도 서슴지 않게 된것이다.

박근혜역도 역시 자기의 존재부지를 위해 《유신》독재부활의 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자기를 감옥에 처박았던 윤석열 역도에 헤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다.

양속이었던자들이 저들의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며 돌아가는 추태야말로 참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윤석열 역도가 아무리 명줄을 부지하기 위해 모지름을 써도 그것은 비참한 파멸을 앞둔자의 단말마적박악에 지나지 않는다. 민의의 등을 돌리고 정쟁에 역행하는자들에게는 레일이 없다.

한일혁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 잡는다고...

《자살명소》로 유명해진 한강구역의 다리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자살률로 화한 피뢰지역 현실을 두고 《자살을 부르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불평등, 세대간, 남녀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을 때 정치를 논한다는 시정배들은 민생은

내행개천체 《국민형세》로 특권, 특혜를 누리며 흥청거리고있다.

폭우로 수재민들이 아우성쳐도 집에 박혀 맥주라틴이나 하는것이 《대통령》이라는자이고 재해현장에서 기념사진이 나 찍어내는 한심한자들이 보수세력들이다.

《민의를 논한다.》는 마당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안책략은 외면한채 뼈다귀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개무리마냥 서로가 당리당략을 위해 물고물고기만 하는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면서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

최근 윤석열역적파당이 또다시 반역적인 망동을 저질러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를 폭발하게 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피뢰대법원은 지난 10월 26일 일본것들에게 락탈당하였다가 피뢰지역에 들어온 민족문화유물을 섬나라것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처용스러운 판결을 내리었다.

그 유물로 말하면 고려시기인 1330년경 충청남도 서산시의 불교사찰인 부석사에서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서 고려말기 왜구들이 락탈하여 쓰시마의 관음사에 보관하고있던것을 2012년 10월 다시 들어온것이라고 한다.

2017년 피뢰법원은 1심재판에서 이 불상이 락탈당하였던 역사유물이므로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2023년 2월에는 쓰시마의 관음사가 1973년부터 불상을 20년이상

보관하였기때문에 소유권이 섬나라것들에게 있다는 황당판결을 내렸다는것이다.

친일사대굴종의식이 필수에 찬 친화적정들의 용납 못할 망당이 아닐수 없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태고적부터 도적질과 강탈을 업으로 삼아온 도적의 무리, 침략과 락탈을 능사로 해온 섬나라오랑캐들이다.

왜구라는 말도 우리 나라에 빈번히 기여들었던 섬나라제나라의 의미이다.

이런자들이 임진조국전쟁기간 우리 나라에서 락탈해간 고려자기는 수천점에 달하여서 일본사가들도 《도자기전쟁》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조선강점을 전후로 일제의 문화해탈은 로골적이고 악랄하였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로 감행되었다.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왕릉도굴과 왕궁락탈로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섬나라로 빼돌렸으며 초대 조선총독이라는 자역적 경복궁의 건물 하나를 통째로 훔어 제 고향인 야마구치에 옮겨졌고 《조선관》이라는 간판을 내건 다음 2000여점의 문화유물과 서적을 비롯한 조선문화재들을 전횡소장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43년 11월 각 도경찰부장들에게 조선민족의 황일의식을 고취할수 있는 문화유물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야만적인 지

령까지 하달하였다.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력사유적, 유물을 파괴하고 성과 이름, 말과 글까지 빼앗으려고 날뛰 무리, 이 땅에 더는 명인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서 삼천리의 명산, 명소들에 쇠말뚝과 붉은 류황물을 쏟아부은 지구상 제일 야비하고 치졸하고 잔인한 무리가 바로 섬나라오랑캐들이다.

일본이 우리 선조들이 제작하고 수백년동안 보존해왔던 불상, 왜구들이 락탈해간 민족문화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운운하는것자체가 강도배들의 뻔뻔스러운 수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파당이 섬나라오랑캐들에게 우리 민족의 문화유물을 다시 넘겨주겠다고 하고있으니 이런 썩개빠진 매국노들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피비린 과거의 죄악을 무마해주는 전법국의 변호사, 일본 《자위대》를 조선반도의 령해, 령공에 끌어들이는 재침의 길잡이, 섬나라것들이 침략자로부터 《동반자》로 되였다고 하면서 과거죄악의 배상도 저들이 해주겠다고 하는 일본의 철저한 노복이 바로 윤석열역적파당이다.

한집의 민족문화유물마저 고수하지 못하는 천하바보들, 친일사대굴종으로 넘과

《이복구비》가 《특이증상》을 보인것이고 특히 누가 말할수도, 단속할수도 없는 입에서 열새 없이 망언들이 생산되는것입니다.

이러니 피뢰지역의 각계층은 윤석열역도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치못내기》, 《도덕적저능아》, 《무지몽매한 인간》, 《사람잡는 (대통령)》, 《화약

《자살명소》로 유명해진 한강구역의 다리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자살률로 화한 피뢰지역 현실을 두고 《자살을 부르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불평등, 세대간, 남녀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을 때 정치를 논한다는 시정배들은 민생은

내행개천체 《국민형세》로 특권, 특혜를 누리며 흥청거리고있다.

폭우로 수재민들이 아우성쳐도 집에 박혀 맥주라틴이나 하는것이 《대통령》이라는자이고 재해현장에서 기념사진이 나 찍어내는 한심한자들이 보수세력들이다.

《민의를 논한다.》는 마당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안책략은 외면한채 뼈다귀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개무리마냥 서로가 당리당략을 위해 물고물고기만 하는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면서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

《자살명소》로 유명해진 한강구역의 다리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자살률로 화한 피뢰지역 현실을 두고 《자살을 부르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불평등, 세대간, 남녀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을 때 정치를 논한다는 시정배들은 민생은

내행개천체 《국민형세》로 특권, 특혜를 누리며 흥청거리고있다.

폭우로 수재민들이 아우성쳐도 집에 박혀 맥주라틴이나 하는것이 《대통령》이라는자이고 재해현장에서 기념사진이 나 찍어내는 한심한자들이 보수세력들이다.

《민의를 논한다.》는 마당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안책략은 외면한채 뼈다귀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개무리마냥 서로가 당리당략을 위해 물고물고기만 하는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면서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

《자살명소》로 유명해진 한강구역의 다리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자살률로 화한 피뢰지역 현실을 두고 《자살을 부르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불평등, 세대간, 남녀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을 때 정치를 논한다는 시정배들은 민생은

내행개천체 《국민형세》로 특권, 특혜를 누리며 흥청거리고있다.

폭우로 수재민들이 아우성쳐도 집에 박혀 맥주라틴이나 하는것이 《대통령》이라는자이고 재해현장에서 기념사진이 나 찍어내는 한심한자들이 보수세력들이다.

《민의를 논한다.》는 마당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안책략은 외면한채 뼈다귀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개무리마냥 서로가 당리당략을 위해 물고물고기만 하는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면서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

《자살명소》로 유명해진 한강구역의 다리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자살률로 화한 피뢰지역 현실을 두고 《자살을 부르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불평등, 세대간, 남녀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을 때 정치를 논한다는 시정배들은 민생은

내행개천체 《국민형세》로 특권, 특혜를 누리며 흥청거리고있다.

폭우로 수재민들이 아우성쳐도 집에 박혀 맥주라틴이나 하는것이 《대통령》이라는자이고 재해현장에서 기념사진이 나 찍어내는 한심한자들이 보수세력들이다.

《민의를 논한다.》는 마당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안책략은 외면한채 뼈다귀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개무리마냥 서로가 당리당략을 위해 물고물고기만 하는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면서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

《자살명소》로 유명해진 한강구역의 다리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자살률로 화한 피뢰지역 현실을 두고 《자살을 부르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불평등, 세대간, 남녀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을 때 정치를 논한다는 시정배들은 민생은

내행개천체 《국민형세》로 특권, 특혜를 누리며 흥청거리고있다.

폭우로 수재민들이 아우성쳐도 집에 박혀 맥주라틴이나 하는것이 《대통령》이라는자이고 재해현장에서 기념사진이 나 찍어내는 한심한자들이 보수세력들이다.

《민의를 논한다.》는 마당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안책략은 외면한채 뼈다귀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개무리마냥 서로가 당리당략을 위해 물고물고기만 하는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면서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

목숨을 버린것이 아니라 빼앗긴것이다

얼마전 피뢰연 《연합뉴스》는 악성전염병사망자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수는 3만 2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 9435명에 달한다.》 더우기 알질이 구만리같은 10대, 20대의 예쁨들이 서슴없이 목숨 포기하는 수가 한층 증가하였으므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실태

에 대해 어느한 언론도 이렇게 보도한바 없다.

《하루평균 36.6명이 자살한다. 365일이 쌓여매해 생기는 자살자수는 1만 3000여명이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수는 3만 2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 9435명에 달한다.》 더우기 알질이 구만리같은 10대, 20대의 예쁨들이 서슴없이 목숨 포기하는 수가 한층 증가하였으므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실태

에 대해 어느한 언론도 이렇게 보도한바 없다.

《하루평균 36.6명이 자살한다. 365일이 쌓여매해 생기는 자살자수는 1만 3000여명이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수는 3만 2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 9435명에 달한다.》 더우기 알질이 구만리같은 10대, 20대의 예쁨들이 서슴없이 목숨 포기하는 수가 한층 증가하였으므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실태

에 대해 어느한 언론도 이렇게 보도한바 없다.

《하루평균 36.6명이 자살한다. 365일이 쌓여매해 생기는 자살자수는 1만 3000여명이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수는 3만 2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 9435명에 달한다.》 더우기 알질이 구만리같은 10대, 20대의 예쁨들이 서슴없이 목숨 포기하는 수가 한층 증가하였으므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실태

에 대해 어느한 언론도 이렇게 보도한바 없다.

《하루평균 36.6명이 자살한다. 365일이 쌓여매해 생기는 자살자수는 1만 3000여명이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수는 3만 2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 9435명에 달한다.》 더우기 알질이 구만리같은 10대, 20대의 예쁨들이 서슴없이 목숨 포기하는 수가 한층 증가하였으므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실태

에 대해 어느한 언론도 이렇게 보도한바 없다.

《하루평균 36.6명이 자살한다. 365일이 쌓여매해 생기는 자살자수는 1만 3000여명이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수는 3만 2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 9435명에 달한다.》 더우기 알질이 구만리같은 10대, 20대의 예쁨들이 서슴없이 목숨 포기하는 수가 한층 증가하였으므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실태

에 대해 어느한 언론도 이렇게 보도한바 없다.

《하루평균 36.6명이 자살한다. 365일이 쌓여매해 생기는 자살자수는 1만 3000여명이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수는 3만 2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 9435명에 달한다.》 더우기 알질이 구만리같은 10대, 20대의 예쁨들이 서슴없이 목숨 포기하는 수가 한층 증가하였으므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실태

에 대해 어느한 언론도 이렇게 보도한바 없다.

《하루평균 36.6명이 자살한다. 365일이 쌓여매해 생기는 자살자수는 1만 3000여명이다.》

《(COVID-19)의 유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수는 3만 2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 9435명에 달한다.》 더우기 알질이 구만리같은 10대, 20대의 예쁨들이 서슴없이 목숨 포기하는 수가 한층 증가하였으므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실태

아름다운 평양의 단풍 계절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심용석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려간다

공화국의 과학연구단위들에서 올해의 과일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러한 속에 산림연구소의 산림수목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좋은 수준의 나무모들을 널리 퍼칠수 있는 효과적인 번식기술을 연구하였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연구소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도입할수 있는 번식기술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직배양기술과 함께 뿌리내리기를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장치와 수단들도 만들었다고 한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계수나무를 비롯한 20여종의 산림수종과 원림수종의 나무모들에 대한 번식방법을 연구하여 중앙시물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고있다.

수도건설설계연구소에서도 건설기계설비들에 필요한 설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현장에 수시로 내려가 건설장비들의 불합리한 점들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성능이 개선된 기계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합평회와 기술발표회를 자주 조직하면서 선진적인 설계방안들을 탐구도입하였다.

이 과정에 쌍속혼합기를 비롯하여 혼합능률과 작업속도를 보다 높일수 있는 건설장비들을 새롭게 설계하여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공사를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한다.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3》

이뿐만 아니라 바다향기가 금시 풍겨오는것만 같은 금산포켓갈가공공장의 특산물들이 그 맛이 더 좋아지고있다.

특히 새우젓 제품들은 부원료로 리용된 남새에 따라 새우의 고유한 맛이 특색있게 살아나 사람이 누구나 밥상에 앉으면 다른것을 제쳐놓고 먼저 찾곤 한다.

까나리와 조개, 굴, 낙지, 맛 등의 것갈품들은 밥반찬으로는 물론 다른 음식의 양념감으로도 리용 가치가 높다.

이 건강에 좋으며 특히 멀치간장은 칼슘함량이 많은 것으로 하여 뼈를 튼튼하게 한다.

금산포켓갈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평양의 보통문거리고기상점, 모란봉금산포켓산물상점,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수도와 지방의 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다.

본사기자

바다향기 즐겨오는 특산물들

또한 꽃고추김치가 고추와 건담이의 천연적인 맛이 조화롭게 어울려 좋고 농마김치가것은 수산물의 독특한 감칠맛으로 하여 인기가 높다.

또한 꽃고추김치가 고추와 건담이의 천연적인 맛이 조화롭게 어울려 좋고 농마김치가것은 수산물의 독특한 감칠맛으로 하여 인기가 높다.



사화

조선온들 (2)

글 리 빈, 그림 채대성

철곡의 열세집사람들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들은 적들과 맞대러는 경우 결사전을 벌일 각오로 도끼와 쇠스랑, 몽둥이 등을 들어치고있었다.

도끼를 짊어온 유로인은 산봉우리로 올라가 싸움판을 내려다보았다.

외적이 철곡사람들의 은신처로 밀려드는 정황이 조성된다면 즉시 신호를 보내어 대책을 세우기 위해하였다.

유로인의 눈길은 처절한 백병전의 한가닥으로 옮겨졌다. 한것은 조선군사 한명이 외적 두놈에게 불리워 뒤걸음치고있는 광경을 보았던것이였다.

몰리우고있는 우리 군사의 뒤 몇걸음안에 《범바위낭》으로 불리우는 절벽이 있었다.

아슬아슬한 이 순간 우리 군사가 적병 한놈을 칼로 찔러냈다.

바로 그 찰나 다른 적병들이 변칙 칼을 내질렀는데 그것이 우리 군사의 어딘가를 찔렀것같았다. 우리 군사는 절벽에서 떨어졌다.

황급히 산을 내려가서 《범바위낭》밑에 이른 유로인은 눈속에 묻혀있는 우리 군사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는 우리 조선군사의 웃은 입었지만 머리칼은 노랑고 살색이 흰데다가 류달리 우뚝한 코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군복은 입었으나 사람은 조선사람이 아니지 않나.

아무튼 설사 그가 조선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적은 아닌 이상 먼저 살려놓고보아야 하였다.

이즈음 우리 군대는 전술상 필요에 따라 적들을 유인하여 밀리로 끌고갔지만 《범바위낭》은 아찔하게 높은데다가 그밑은 숲이 우거져있어 유로인은 그들을 볼수가 없었다. ...

유로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내 그대 열린 가슴에 손을 대보거라 정신은 없어두숨은 불어있거든. 그래서 업어왔지》

박연은 뚫어넘치는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정녕 내 생명의 은인-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지도 이 은공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파르스름한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런 말 말라니. 고맙다

가 없었다.

그는 흐느끼며 《고상한 조선공수에 존경의 표시, 감사의 표시로는 절을 드리는 법인데 여러 은인들께 절을 드려도 큰절을 드려야 할 내게 일어설수가 없으니 널리 용서해주시시오.》 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유로인과 이웃들은 절을 뒤고 용서는 또 무슨 용서인가.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 마땅히 사람의 도리이니 그런 말은 말라고 부드럽게 만류했으나 박연은 도저히 가만있을수가 없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게 박연은 계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 조선사람들은 인정과 도리를 숨겨로 삼고있는 참다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말을 믿을수 없을것입니다. 리해됩니다. 내가 생명의 은인들앞에서 어찌 꾸며낸 소리를 하겠습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굽어보십니다. ...》

이때 문득 그의 머리속에 이 제것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있었다는 생각이 얼핏 떠올랐다.

(아차! 이런 인사불성이라 구야.)

서둘러 자기 소개를 하려

박연은 계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 조선사람들은 인정과 도리를 숨겨로 삼고있는 참다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말을 믿을수 없을것입니다. 리해됩니다. 내가 생명의 은인들앞에서 어찌 꾸며낸 소리를 하겠습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굽어보십니다. ...》

이때 문득 그의 머리속에 이 제것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있었다는 생각이 얼핏 떠올랐다.

(아차! 이런 인사불성이라 구야.)

서둘러 자기 소개를 하려

박연은 계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 조선사람들은 인정과 도리를 숨겨로 삼고있는 참다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말을 믿을수 없을것입니다. 리해됩니다. 내가 생명의 은인들앞에서 어찌 꾸며낸 소리를 하겠습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굽어보십니다. ...》

이때 문득 그의 머리속에 이 제것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있었다는 생각이 얼핏 떠올랐다.

(아차! 이런 인사불성이라 구야.)

서둘러 자기 소개를 하려



아닙니다. 여기 조선사람들은 인정과 도리를 숨겨로 삼고있는 참다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말을 믿을수 없을것입니다. 리해됩니다. 내가 생명의 은인들앞에서 어찌 꾸며낸 소리를 하겠습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굽어보십니다. ...》

이때 문득 그의 머리속에 이 제것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있었다는 생각이 얼핏 떠올랐다.

(아차! 이런 인사불성이라 구야.)

서둘러 자기 소개를 하려

11월의 절기에는 립동과 맞보이는것을 도덕으로 여기있다.

림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를 뜻하며 소설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르는 말이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의 식생활습속에서 중요한것은 김치담그기와 다음해 봄에 가서 장을 당근데 필요한 메주를 찌는것도 우리 선조들속에서 대대로 전해져오는 오랜 풍습이였다.

또한 이 시기 문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을 손질하며 외양간을 고쳐치는 등 겨울나이준비도 착실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풍습들에는 깨끗한것을 좋아하고 간지면서도 근면한 우리 민족의 생활기풍이 반영되어있다.

이 시기 진행한 민속놀이들은 추운 날씨조건에 맞는 율동과 바둑, 장기, 칠교놀이 등 방 안에서 하는 유희오락과 어린 이들이 즐겨한 연피우기, 제기차기 등이였다.

올해의 립동은 11월 8일, 소설은 11월 22일이다.

본사기자

11월의 절기와 민속

웃음의 령리한 깨우침

사과 한꾸레미를 들고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기뻐서 말하였다.

《어머니, 나 먹으라고 가져온거예요?》

《아니다. 네 외할머니에게 가져다드릴것이란다.》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 안가져다드리나요?》

《음, 거긴 네 고모가 있지 않느냐.》

《제, 그럼 나한테 누가 없으니 후에 어머니에게 사과를 가져다드릴 사람이 없겠거만요.》